

紫霞 申緯와 청 문단의 교유 양상

— 1812년 연행 이후를 중심으로

林映吉*

I. 머리말	III. 서신을 통한 '神交'와 대청 교류망의 확장
II. 신위의 燕行과 북경 문단의 동향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신위(1769~1847)와 청 문단의 교유 양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신위는 1812년 진주 겸 주청 사행의 서장관으로 북경에 가서 당대 문단의 종장이던 翁方綱과 그의 아들 翁樹崐을 만나 깊은 교분을 맺었으며, 옹방강의 서재를 방문하여 옹방강 문하의 葉志詵, 王汝翰, 朱鶴年 등과도 교유하였다. 신위는 추사 김정희의 뒤를 이어 북경 학예의 중심에 있던 문사들과 교류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향후 조·청 양국의 인적 교류망이 확장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812년 연행 이후 신위는 沈象奎, 韓致應, 洪義浩, 朴宗薰, 南尙教, 申在植 등 연행을 떠나는 지인들을 적극 활용하여 북경 문단의 최신 동향을 입수하는 한편, 서신과 시문을 통해서 옹방강의 제자 吳嵩梁을 비롯하여 蔣詩, 錢林, 陳文述, 熊昂碧, 陳用光, 鄧傳密, 周達, 張深 등과 교분을 맺었다. 이들과의 교유는 182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중 신위의 교류망이 확대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은 장시이다. 신위는 장시를 매개로 전립, 옹양벽, 진문술 등과 교분을 맺은 것으로 파악된다.

1830~1840년대에는 주로 역관 李尙迪을 통해서 儀克中, 韓韻海, 端木國瑚, 王鴻 등에게 시문을 지어 보내며 간접적으로 교유하였다. 신위는 북경 문단과의 소통의 최전

* 단국대학교 한문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선에 서서 조선의 문예 수준을 청 문단에 전파하는 역할을 자처하였다. 동시에 자신의 주변 문인들을 북경의 벗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대청 교류망을 확장해나갔다. 신위의 연행은 노론 경화세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론·남인계 문인들과 중인층 시인들이 북경 문단과 소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주제어 : 申緯, 翁方綱, 翁樹崐, 吳嵩梁, 蔣詩, 陳文述, 錢林, 熊昂碧

I. 머리말

紫霞 申緯(1769~1847¹⁾)는 ‘詩·書·畫 三絶’로 일컬어지며 19세기 조선의 시단을 이끈 인물이다. 이러한 평가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공인되어 많은 청 문사들이 신위의 시와 그림을 극찬하였다.²⁾ 신위는 1812년 44세의 나이에 진주 겸주청사행의 서장관으로 연행길에 올라, 당대 북경 문단의 宗匠이던 翁方綱과 그의 아들 翁樹崐을 만나서 깊은 교분을 맺었다. 신위는 옹방강의 石墨書樓를 방문해 옹방강 문하의 금석학자 葉志詵, 화가 王汝翰과 교유했으며, 옹방강과 阮元을 중유하던 화가 朱鶴年과도 귀국 직전 극적으로 만나서 교제하였다. 신위가 북경에서 사귀어 인물은 그와 동시기에 연행한 秋史 金正喜와 비교하면 다소 적은 규모라고 할 수 있지만,³⁾ 북경 학예의 중심에 있던 이들과의 교류는 신위 개인뿐만 아니라 향후 조·청 양국의 인적 교류망이 확장되는 데 큰 발판이 되었다.

신위가 양국 문단에 미친 영향력은 지대하여, 신위가 조선으로 돌아간 뒤에도 청 문사들은 조선 사절단을 만나면 신위를 조선 제일의 시인으로 꼽으며 그의 근황을 물어보았다. 귀국 후 신위는 가까운 지인들을 매개로 하여 북경 문단과 활발하게 소통했는데, 1840년대까지 신위가 직·간접적으로 교제한 청조 인사들의 수는 상당히 많다. 지인들의 연행이 신위의 중국 내 교류망을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더욱이 서신을 통해 교류를 지속하면서도 신위는 자신과 친밀한 조선의 문인들을 청 문단에 소개함으로써 청 문사들이 조선 문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데 기여하였다.⁴⁾

1) 金澤榮이 『申紫霞詩集』의 「年譜」에서 1845년으로 잘못 기술한 것을 후대의 인명사전에서 답습하고 있다. 신위의 몰년 변증은 이현일, 「紫霞에 관한 몇 가지 일화」, 『문헌과 해석』 44, 문헌과해석사, 2008, 193~197면 참조.

2) 일례로 신위와 직·간접적인 교류가 전혀 없던 祁遵藻(1793~1866)가 몽골인 관원 賽尙阿로부터 접한 신위의 시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시집에 시의 전문을 실어둔 사례를 들 수 있다. 신위의 詩名이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에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음을 방증한다. 자세한 사항은 이현일, 「紫霞 申緯의 漢詩史의 위상과 文藝觀」, 『한국한문학연구』 75, 한국한문학회, 2019, 39~42면 참조.

3) 김정희는 1809년 동지부사로 임명된 부친 金魯敬을 수행하여 入燕하였다. 藤塚鄰의 저서에서 다른 인물 가운데 김정희가 실제로 만난 사람은 翁方綱·翁樹崐 부자, 阮元, 徐松, 曹江, 朱鶴年, 李林松, 洪占鎔, 李鼎元, 金勇 형제 등으로 이들은 모두 옹방강을 從遊한 문인 집단이었다.

4) 대표적인 인물로 海居齋 洪顯周(1793~1865)를 들 수 있다. 신위와 洪顯周는 1820년대 吳嵩梁,

종래 신위의 연행에 관해서는 주로 옹방강·옹수곤 부자와의 교류 및 그 영향 관계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⁵⁾ 그밖에 중국 여성 작가들의 문예 작품이 조·청 문단에 공유된 양상을 신위의 사례를 들어 고찰한 연구⁶⁾와 신위가 청 문인들과 주고받은 회화 관련 시문들을 조명한 연구⁷⁾가 있다. 이를 통해 19세기 한중 문화 교류사에서 차지하는 신위의 위상과 중요도가 조명되었다. 다만 신위가 연행한 이후에 청조 문단과 교류한 실상을 전면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⁸⁾ 1812년 연행 후 신위가 교제한 청조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옹방강의 문인 제자들과 관련이 있으면서 1820~1830년대 조선 사절단의 보편적인 對淸 교류망의 흐름과 대체로 일치한다. 즉 신위의 대청 교류 양상은 19세기 전반기 김정희 이후 조·청 교류망이 확장되어 간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양측의 교류가 성사된 경위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신위와 청 문사들과의 교류 양상을 총체적으로 살피되, 신위가 서신

蔣詩, 陳文述 등과의 교제에 동참하여 중국 서적과 서화를 실시간으로 입수하고 최신 학예 동향을 파악하였다. 홍현주와 청 문단의 교류에 대해서는 임영길, 「洪顯周와 淸 문단의 神交와 그 의미」, 『동방한문학』 87, 동방한문학회, 2021 참조.

- 5) 손팔주, 『申緯研究』, 태학사, 1983, 257~296면에서 신위가 옹방강의 영향으로 '由蘇入杜'의 詩論을 견지했음을 밝힌 이래로, 박현규, 「淸 翁方綱 소장 蘇軾 『天際烏雲帖』과 조선 申緯의 結緣」, 『한중인문학연구』 12, 한중인문학회, 2004; 금지아, 「朝鮮 申緯의 『奏請行卷』 연구: 燕行과 翁方綱과의 文墨緣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1, 열상고전연구회, 2005; 신일권, 「신위의 청나라 연행 이후에 나타난 시의 특징-고증적 성향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64, 한국문학회, 2013; 신일권, 「申緯의 삶과 시세계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15; 정은주, 「1812년 진주겸주청사행과 한중 묵연-자하 신위와 정벽 유취관을 중심으로」, 『다산과 추사, 정벽 유취관』, 추사박물관, 2015; 박철상, 「紫霞 申緯의 燕行과 翁方綱의 영향」, 『한국한문학연구』 75, 한국한문학회, 2019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 6) 박무영, 「18-19세기 중국 여성예술가의 소식과 조선의 반응」,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이현일, 「조선후기 경화세족의 이상적 여성상-申緯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박무영, 「조선후기 韓·中 교류와 젠더담론의 변화-徐壽壽閣의 중국 반출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45, 한국고전문학회, 2014.
- 7) 김현권, 「김정희과의 한중회화교류와 19세기 조선의 화단」,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0, 214~254면; 김기완, 「한중교류와 19세기 거주지 재현 예술」, 『한국한문학연구』 51, 한국한문학회, 2013.
- 8) 신일권, 앞의 2015 논문, 42~61면에서 귀국 후 청조 인사들과의 교류 정황을 일별하였으나, 양측의 시기별 접촉 경로나 청 문사 그룹의 경향성 등은 세세하게 다루지 않았다. 참고로 이 논문에서 秋吟 蔣詩를 蔣惟로 잘못 기재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교환의 방식으로 ‘神交’를 맺은 인물들과 그 인물들의 ‘同人的’ 특성⁹⁾에 주목하고자 한다. 19세기 조선과 접촉한 청 문사들은 문학 및 학술 경향과 교유 관계(貫籍 및 門生·同榜 여부 등을 포함)를 고려하여 몇 개의 집단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조선 문인들 역시 가문·당색·시승 등의 관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청 문사 집단과 교유한 정황이 포착된다. 따라서 양국의 교유에 참여한 인물들의 관계도를 파악하는 작업은 교류사를 연구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발판으로 신위의 대청 교류망 및 동시기에 직·간접으로 청 문단과 관계를 맺은 조선 문인들의 교류망을 각각 비교 분석하여 그 구성원의 同異를 살펴본다면 19세기 한중 문인 교유의 집단적 특성 내지는 차이점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II. 신위의 燕行과 북경 문단의 동향

신위는 1812년 7월(이하 음력) 효명세자의 책봉을 주청하기 위한 진주 겸 주청사행의 서장관으로 임명되어 연행길에 올랐다. 당시 정사는 李時秀, 부사는 金銑, 수역은 朴宗行이며, 신위의 요청으로 貞碧 柳最寬(1788~1843)이 동행하고, 화원 李壽民(1783~1839)도 사행에 참여하였다. 사절단은 7월 18일 사패하고 8월 13일 압록강을 건너 심양(8월 24일)과 산해관(9월 9일) 등지를 거쳐 9월 19일 북경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북경에서 29일을 체류한 후 10월 17일 북경을 출발하여 12월 2일 북명하였다.¹⁰⁾ 당시 사행의 기록으로 신위의 『奏請行卷』(『警修堂全藁』 책1 수록)과 이시수의 『續北征詩』¹¹⁾가 전한다.

9) 이춘희, 『19세기 한·중 문학교류:李尙迪을 중심으로』, 새문사, 2009, 306~321면에서 김정희와 신위가 용방강·완원을 중심으로 하는 문인 그룹, 즉 석학을 중심으로 특정한 학술이나 문학 경향을 띠는 동인들과 집중적으로 교류했음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한중 문사들의 교유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동인적·집단적 특성을 띠는 것은 18세기 후반 이덕무·박제가·유득공 등의 교유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정민,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문예공화국』, 문학동네, 2014 참조.

10) 1812년 진주 겸 주청사행의 경위는 정은주, 앞의 2015 논문, 72~78면에 자세하다.

11) 이시수의 『속북정시』는 장편고시로 창작한 연행시이다. 『속북정시』에 관해서는 박우훈, 「李時秀의 연행장시 『續北征』 연구」, 『한국시가연구』 5, 한국시가학회, 1999; 김동준, 「『續北征詩』, 李時

김정희를 비롯하여 金祖淳, 趙秉鉉, 沈象奎, 李明五 등 지인들이 첫 여행을 떠나는 신위를 전별해주었다.¹²⁾ 신위가 여행을 떠날 무렵, 조선에서는 18세기 후반 朴齊家(1778·1790·1801), 洪良浩(1782·1794), 柳得恭(1790·1801) 등이 북경 문단에 구축해놓은 인적 교류망을 바탕으로 南公轍(1807년 동지사행), 金正禧(1809년 동지사행), 曹龍振(1811년 동지사행) 등이 잇달아 중국에 가서 翁方綱(1733~1818) 문화의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었다. 남공철은 군관 南石老(자 良師)를 통해 陳用光(1768~1835), 陳希曾(1766~1817), 陳希祖(1765~1820), 曹江(1781~1837), 李林松(1770~1827) 등과 간접적으로 교류했으며,¹³⁾ 동지정사 曹允大의 아들로서 자제군관으로 입연한 조용진은 김정희의 소개와 朱鶴年(1760~1834)의 주선으로 翁方綱(1733~1818)의 아들 翁수근(1786~1815)과 교제할 수 있었다.¹⁴⁾ 진용광은 동성과 문인으로 翁方綱의 시제자 중 한 사람이고, 조강과 이임송은 당시 翁方綱을 중심으로 열린 시회에 참여한 동인들이며, 주학년은 揚州 출신으로 翁方綱을 중유하며 阮元(1764~1849)과 친밀했던 화가이다. 요컨대 18세기 북학파의 여행으로부터 활성화되어 19세기 김정희의 여행을 계기로 한층 확대·심화한 한중 문화 교류의 기반이 일련의 조선 문인들에 의해 면면히 마련된 것이다.

이렇듯 조선에서 여행을 통해 翁方綱의 영향 아래 놓인 청 문사들과의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는 분위기 속에, 신위는 중국의 명승을 유람하기보다는 명류들과 교제

秀가 시로 쓴 여행기, 『서지학보』 25, 한국서지학회, 2001 참조.

- 12) 金祖淳, 『楓臯集』 권3, 「送三行人紫霞申(緯)」; 趙秉鉉, 『成齋集』 권2, 「送申紫霞(緯)充節使行臺」; 沈象奎, 『斗室存稿』 권1, 「贈別紫霞申漢叟(緯)」; 李明五, 『泊翁詩鈔』 권5, 「送別申紫霞(緯)入燕」 등.
- 13) 남석로가 오류거 서점에서 이임송을 만난 뒤에 이임송의 집에서 진용광·진희조를 만났다는 내용이 저자 미상(磬山)의 여행일기 『入燕記』에 보인다(1808년 1월 7일·12일조). 최근 안순태, 「남공철 여행록 연구」, 『국문학연구』 39, 국문학회, 2019, 161~174면에서 일본 이시카와 다케요시 도서관에 소장된 남공철의 여행일기(사본 2책)를 소개하면서 남공철과 청 문사 간의 교류 양상을 자세히 밝혔다.
- 14) 김정희는 조용진에게도 翁方綱을 찾아갈 것을 권유하였다(金正禧, 『阮堂全集』 권10, 「送曹雲卿入燕」, 「松風石跡墨緣眞, 一縷香煙念念塵. 萬里相看青眼在, 蘇齋又是問津人.」). 북경에 도착한 조용진은 제일 먼저 주학년을 찾아갔고, 1월 7일 주학년의 주선으로 翁方綱의 집을 방문해 翁수근과 교분을 맺었다(李鼎受, 『遊燕錄』 권8, 「留館」 上, 1812년 1월 5일·7일·22일·26일·29일조 참조). 참고로 조용진은 1823년 동지사 서장관으로 재차 입연했는데, 신위는 조용진을 전별한 시에서 조용진과 翁성원의 우정을 언급하기도 하였다(申緯, 『警修堂全藁』 冊11, 『花徑臙墨』 八, 「屬曹雲卿行臺(二首○并序)」).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만큼¹⁵⁾ 중국 인사와의 만남을 연행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주지하듯이 김정희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1809년 12월 동지정사로 임명된 부친 金魯敬을 수행하여 북경에 도착한 김정희는 이듬해 1월 29일 徐松(1781~1848)과 조강의 주선으로 옹방강을 직접 만나서 국경을 초월한 師弟의 연을 맺고 돌아왔다. 김정희는 신위에게 「送紫霞入燕詩」 10수를 지어주면서 옹방강을 반드시 만나볼 것을 주선함과 동시에 북경에서 나눌 대화의 화젯거리까지 소상히 알려주었다.¹⁶⁾ 신위는 김정희의 연행 이전에 이미 스승 姜世晁(1713~1791)을 통해 옹방강의 명성을 들어 알고 있었으나,¹⁷⁾ 당시 옹방강이 벼슬에서 물러나 정해진 시간에만 손님을 접견하여 조선 사절단이 쉽게 만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¹⁸⁾ 신위와 옹방강의 만남이 성사되는 데 김정희의 소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이 분명하다.

신위는 북경으로 가는 도중 심양에서 태학사 松筠(1752~1835), 심양장군 和寧(1740~1821), 심양공부시랑 富俊(1749~1834) 등 몽골인 관원들과 만나 필담을 나누었고,¹⁹⁾ 귀국길에는 산해관에서 劉元吉(1749~1814)과, 요동에서 李克勤·榮自馨과 교제하였다. 북경에 도착해서는 嘉慶帝가 마련한 공식 연회에 참석했는데, 그중 圓明

15) 1841년 동지정사 李若愚가 신위에게 노구교를 보았는지 물었을 때, 신위가 노구교 유람은 옹방강과 같은 한 시대의 인물과 만나 詩書를 논한 일만 못하다고 말한 것을 보면, 신위는 중국 명사와의 교제를 연행 제일의 목표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申緯, 『警修堂全藁』 冊28, 『覆瓿集』 八, 「贈別臧弟李景容尙書(若愚)奉使入燕」의 원주 참조.

16) 박철상, 앞의 2019 논문, 65~68면 참조.

17) 申緯, 『警修堂全藁』 冊4, 『戊寅錄』, 「覃溪以今年正月廿七日亡, 訃至, 以詩悼之」 제3수의 원주, “始豹翁丙午(1786)使行, 獲見覃溪文墨, 再於秋史庚午(1810)之行, 益知其所未知.” 강세황은 1784년 건릉제가 마련한 千叟宴에 참석하기 위해 진하부사로 入燕하였다. 이때 강세황의 글씨를 본 옹방강 등이 “타고난 뼈대가 저절로 살아있다”며 경탄했다고 한다(정은진, 「표암 강세황의 연행 체험과 문예활동」, 『한문학회』 25, 우리한문학회, 2011, 364~365면 참조).

18) 이정수, 『유연록』 권8, 「유관」 상, 1812년 1월 7일, “翁, 順天大興人也. 曾經禮侍, 退老於家, 靜居修養, 只於辰巳時接客, 過此則否.”

19) 『일성록』 1812년 12월 2일자에 실린 〈書狀官別單〉을 보면 松筠과 관련한 정보가 다수 실려 있어 신위가 송균을 만나는 과정에서 청의 정세를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1819년 동지정사 洪義臣이 심양에서 송균과 만났을 때 송균이 신위의 안부를 물었다고 한다(申緯, 『警修堂全藁』 冊7, 『碧蘆舫藁』 三, 「蘭塾尙書自燕返命有月, 而初伏日茗隱宅, 始與相見, 蓋余病久不出也, 輒以詩記之, 兼懷岳州守」, “十年信息松湘浦(閣老松筠外補瀋陽將軍, 與蘭塾相見, 問壬申奏請一行安否云).”).

園에 있는 同樂園의 慶豐圖 연회에 참석한 일은 특기할 만하다. 조선 사절단이 경풍도에 들어간 경우는 드문 일이지니와,²⁰⁾ 이 연회에서 몽골인 패륜 丹巴多爾濟(단바도르지)가 신위와의 교제를 적극 희망하여 海淀에 있는 자신의 별서로 신위를 초대한 것이다.²¹⁾ 또한 형부상서 金光悌가 경풍도 연회에서 신위와 대화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여기고는 주학년을 보내어 먼저 만남을 요청하기도 하였다.²²⁾ 이때 김광제가 자신의 아들 金勇(호 近園)의 명함을 신위에게 전달한 것을 계기로 김용은 김정희에 이어 신위와 인연을 맺게 된다.²³⁾

한편 9월 28일 신위는 유취관과 함께 옹방강의 石墨書樓(일명 蘇齋)를 방문하였다. 그 자리에는 옹방강의 여섯째 아들 翁수곤, 옹방강의 제자 葉志詵(1779~1863)과 汪汝翰이 동석했으며, 옹방강의 다섯째 사위 戈寶樹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²⁴⁾ 신위가 『天際烏雲帖』, 『施顧註東坡先生詩』, 『化度寺巒禪師塔銘』을 감상한 일

20) 『정조실록』 7년(1783) 2월 27일, <동지 겸 사은 정사 정준겸과 부사 홍양호가 연경의 일을 보고하다> 기사, “19일에 예부 상서가 통역관을 불러 말을 전하기를, ‘황제께서 조선 사신으로 하여금 오늘 산고수장각의 연회에 참석한 뒤 慶豐圖로 따라 들어가 관람하게 하라고 명하셨다.’하고, 이어 말하기를, ‘이는 매우 엄숙한 곳이므로 수행 관원은 따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중략) ‘대체로 이곳은 황제가 내부에서 노니는 곳으로서 同樂園이라고 부르는데, 경풍도는 그 집의 이름입니다. 정말 貴戚의 신하가 아니면 들어가라고 허락한 적이 없었는데, 특별히 신들을 참여하라고 허락했으므로 그곳 사람들이 너나없이 놀랐습니다.’” 1782년 동지사행 이후로 18세기 말까지 조선 사절단이 경풍도 연회에 참석한 기록은 종종 보이지만, 19세기 연행 기록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18세기 후반 건륭제가 조선 사절단에 베푼 ‘特恩’의 영향으로 공식 의례 장소에서 청 관원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21) 申緯, 『警修堂全藁』 冊1, 『奏請行卷』, 「貝勒(丹巴多爾濟)求余扇詩」. 단바도르지는 일찍이 반산의 주점에 걸려 있던 신위의 글씨를 보고서 신위와 교제하길 희망하고 있었다(『警修堂全藁』 冊19, 「題瀉船黃葉懷人圖」의 원주, “余於盤山酒樓, 有書贈主人者, 丹貝勒朝陵歸路見之, 豪奪而來, 已入屏幃. 是日海甸相邀, 亦以此墨緣.”).

22) 申緯, 『警修堂全藁』 冊1, 『주청행권』, 「館中卽席走筆, 謝朱野雲(鶴年)見訪, 兼致副懷金蘭畦尙書(光悌)」의 원주, “蘭畦尙書於同樂園宴筵班次, 遙見不佞, 歸語野雲曰: ‘朝鮮書狀官, 吾望見其眉目, 必是文士, 恨未接話.’ 乃送野雲紹介相見, 且令季子近園先送名帖.”

23) 方履錢, 『萬善花室文稿』 권7, 「金近園供石圖賦(并序)」, “臣與朝鮮侍郎申紫霞有瓊李之貽, 僑札之好焉. 申君既歸, 其門人李子絳茶(李祖默-인용자)聆而慕之, 神期若一蒹葭, 有思賞契所欽. 蘭桂自鬱, 乃折訊走幣, 因申君達於近園遐方之珍, 先之以峻石一區, ……” 김정희와 김광제·김용 부자의 교류에 대해서는 藤塚鄰 저, 박희영 역, 『추사 김정희 또다른 얼굴』, 아카데미하우스, 1994, 145~147면 참조.

24) 申緯, 『警修堂全藁』 冊19, 「題瀉船黃葉懷人圖」, “蘇齋蘇室叩詩隨, 蘇集蘇帖參寶蘇. 書家秘鑰啓用

등 蘇齋에서의 墨緣은 선행연구에 소상히 밝혀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당시 옹방강 문하에서 조선 문인과 교제한 청조 인사들 간의 관계도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1810년대 김정희와 신위를 비롯하여 조선 문인들과 교유한 청 문사들은 대체로 옹방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²⁵⁾ 19세기 초반 북경 문단을 주도하던 집단 내에서는 동향 출신이거나 문학 또는 학술 경향이 유사한 인사들끼리 혼맥 관계를 형성한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조선과 관련 있는 청 문사를 열거해보면, 翁方綱과 朱筠(이상 直隸 大興), 阮元(江蘇 儀徵)과 孔憲增(山東 曲阜), 葉志詵(湖北 漢陽)과 陳沆(湖北 蘄水), 吳嵩梁(江西 東鄉)과 陳用光(江西 新城), 陳用光과 祁遵藻(山西 壽陽), 陳孚恩(陳希曾 아들, 江西 新城)과 徐寶善(安徽 歙縣), 孔憲彝(山東 曲阜)와 龔自珍(浙江 人和), 陸繼輅와 洪詒孫(洪亮吉 아들, 以上 江蘇 陽湖), 程恭壽(浙江 錢塘)와 張祥河(江蘇 婁縣) 등이 사돈지간이다.²⁶⁾ 이러한 관계는 두 집안이 비록 문학·학술적으로 동일한 학파의 일원이 아니더라도 친연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옹방강을 위시하여 조선 문인들과 교제한 청조 문인 학자들은 대체로 고증학적 학풍을 견지하면서도 성리학의 이념을 존중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²⁷⁾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조선 문인 가운데 일부 생소한 청조 인물을 만난 경우 공교롭게도 옹방강 문하의 동인들과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1815년 동지정사 洪義浩·洪義福 부자(당색은 남인)의 사례와 1829년 사은부사 洪義瑾(당색은 소론)의 사례를 들 수 있다. 1815년 동지사행에서 남인인 홍의호·홍희복 부자가 만난 인사들 중에 옹방강의 문생이 한 사람도 없는 데 반해, 동지부사 趙鍾永의 군관 趙寅永은 옹방강의 소재에서 劉喜海를 만났다. 또한 1829년 사은사행에서 소론인 홍희근은 勞崇羲·盧應翔·王炳·程庭桂·霍隆阿·瞿溶·栗烜·鐘岳 등과 교유한 반면, 서장관 趙秉龜는 조인영의 뒤를 이어 금석학자 유희해·韓韻海·陳克

筆, 內密外縱傳楷模。紅豆歌筵日狂飲, 戈生(寶樹)葉生(東卿)汪君(載青)俱。”

25) 정혜린, 『추사 김정희와 한중일 학술 교류』, 신구문화사, 2019, 232~236면에 따르면, 김정희가 직접 대면하거나 편지를 주고받으며 교유한 18명의 문인은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와 명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옹방강과 완원을 중심으로 긴밀한 교분을 지녔다고 하였다.

26) 청 문사들의 혼맥 관계는 徐雁平 편저, 『清代文學世家姻親譜系』, 鳳凰出版社, 2010을 참조하였다.

27) 따라서 특정 인물이 고증학자나 금석학자로 분류된다고 해서 별개의 집단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성리학에 대한 견해(주자학, 양명학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인적’ 경향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明 등과 만났다.²⁸⁾ 다시 말해 김정희와 신위의 국내 교유 관계에 공통적으로 속해 있었는가에 따라 옹방강 문하의 동인들과 교분이 있었는지 대략 분별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신위의 연행을 매개로 하여 조선에서는 김정희 및 신위와 친밀했던 沈象奎(1766~1838)와 洪顯周(1793~1865) 등이 옹방강 부자와 인연을 맺었다. 심상규는 신위의 뒤를 이어서 1812년 동지정사로 入燕했는데, 옹방강 부자를 비롯하여 李鼎元, 주학년, 宋湘, 洪占銓, 劉嗣綰, 朱榮, 胡定生·胡衛生 형제 등과 교류하였다.²⁹⁾ 특히 이정원(1749~1815)은 18세기 후반부터 柳琴(1776년 진하사행)을 필두로 蔡濟恭·沈念祖·李德懋·朴齊家(이상 1778년 사은사행), 洪良浩(1794년 동지사행) 등 조선 문인들과 교류를 지속하고, 1809~1810년 김노경·김정희 부자와도 교제한 인물이 다. 심상규는 1778년 사은부사로 연행한 부친 심염조와의 인연으로 이정원, 그리고 이정원과 절친한 사이였던 옹수곤과 교분을 잇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신위는 귀국길 의주에서 사행길에 오른 심상규를 만나 옹방강 부자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으므로,³⁰⁾ 심상규가 옹수곤과 교분을 맺게 된 데는 신위의 역할도 일정 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 같은 관계망 하에 심상규는 신위와 더불어 『시고주동파선생시』에 拜觀記를 쓴 조선 문인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³¹⁾

아울러 홍현주는 귀국한 신위로부터 옹수곤의 편지를 전달받은 뒤로 북경 문단과

28) 임영길, 「19세기 전반 연행록의 특성과 조·청 문화 교류의 양상」,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8, 48~51면에서 중국 문사와의 교제 과정에 당색의 영향이 존재했음을 지적하였다. 당시 홍의호·홍희복 부자가 북경에서 교유한 인사는 吳大翼·高鳳臺·熊常鎔·熊常鎬·周錫祺·劉杰·孫銓·馬維璜·海觀 등이다.

29) 沈象奎, 『斗室存稿』 권1, 「次韻星原翁樹岷見寄」, 「用前韻復寄」, 「和韻中紫霞自題小照, 書星原帖」, 「次韻李墨莊鼎元(癸酉)」, 「次韻宋芷灣編修湘詩餘二絕句」, 「書李墨莊登岱圖, 次韻袁隨園杖七十八歲舊題」, 「次韻宋芷灣(四首)」, 「以白覆藥丸箋紙蠟燭送墨莊, 墨莊即有四絕句以謝, 次韻却寄」, 「拈花寺, 次韻墨莊」, 「次韻芷灣寄別」 등. 이들 역시 옹방강·옹성원 부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참고로 劉嗣綰과 朱榮는 1827년경 신위와 교제한 錢林과 同榜이다.

30) 申緯, 『警修堂全藁』 冊1, 『奏請行卷』, 「聚散離合之際, 語多傷懷, 亦嫌陳腐, 而萍水歡會, 終不可無跡, 以詠物體爲詩令, 漢叟日燭, 景博日拈坡韻, 善之拈以示之稚教日, 非癡眉姿池乎(時斗室以冬至上使, 景博以行臺, 善之以問禮官留灣)」; 鄭元容, 『經山集』 권1, 「壬申十一月元良受冊, 余以問禮官, 啣命赴灣府, 是行也, 節使之赴燕, 奏請使之歸國, 先後齊會, 亦一時之罕遇也, 聚散離合之際, 語多傷懷, 亦嫌陳腐, 而萍水歡會, 終不可無迹, 以咏物體爲詩令, 漢叟(申緯)日燭, 景博(李光文)日拈坡韻, 善之拈以示之, 稚教(沈象奎)日非癡眉姿池乎」.

31) 『施顧註東坡先生詩』에 얽힌 사실은 박철상, 앞의 2019 논문, 69면에서 소상히 고구하였다.

본격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하였다.³²⁾ 특히 1820년대 신위와 더불어 시와 그림으로 북경 문단에 회자되며 吳嵩梁, 蔣詩, 陳文述 등과 신교를 맺고 시문과 서신을 주고받았다. 이렇듯 19세기 초 한중 문인 교유의 흐름은 ‘김정희·신위와 그 교유자—옹방강과 그 동인’이라는 큰 줄기가 형성된 바탕 위에 별개의 몇몇 집단 간 교유가 병존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Ⅲ. 서신을 통한 ‘神交’와 대청 교류망의 확장

1812년 12월 중국에서 돌아온 신위는 북경 문단과의 소통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심상규 등 후속 사행 편에 옹방강·옹수곤 부자와 시문 및 서신 교환을 지속하는 한편,³³⁾ 박제가의 아들 朴長菴 및 유취관, 李肇源 등을 통해 이정원, 오승량, 섭지선 등의 작품을 접하고 품평하는 시문을 지어 보냈다. 1817년 신위는 유취관의 집에 소장되어 있던 오승량의 소실 岳綠春의 「蕙蘭圖」를 감상하였고, 박장암의 부탁으로 이정원의 초상에 붙이는 題詩를 지었으며, 1821년 동지정사 이조원의 부탁으로 섭지선에게 「子午泉詩」를 지어 보내기도 하였다.³⁴⁾ 동시에 홍의호와 조종영(이상 1815년 동지사행), 韓致應(1817년 동지사행) 등 사절단을 전별하면서 공통적으로 옹방강을 언급하였다. 신위는 이들을 통해 옹방강 부자와의 인연을 지속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한치응(1760~1824)에게는 북경 지인들의 소식을 전해줄 것과 10종의 책을 구입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옹방강에게 金泥로 쓴 대련 글씨를 받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³⁵⁾

32) 임영길, 앞의 2021 논문, 384~385면 및 藤塚鄰 저, 앞의 1994 책, 186~187면에 실린 옹수곤의 편지 참조.

33) 『警修堂全藁』의 『清水芙蓉集』와 『鳴琴采藥之軒存藁』(이상 冊2), 『蘇齋拾草』과 『蘇齋二筆』(이상 冊3), 『蘇齋續筆』과 『戊寅錄』(이상 冊4)에 관련 시편이 다수 실려 있다.

34) 申緯, 『警修堂全藁』 冊3, 『蘇齋二筆』, 「題吳蘭雪(嵩梁)姪人岳綠春蕙蘭掛圖(此圖舊爲翁星原物, 今歸貞碧館. 綠春有二小印, 白文曰岳氏筠姪, 朱文曰蓮花博士)」; 冊4, 『蘇齋續筆』, 「朴小菴(長菴)屬題李墨莊(鼎元)獨吟小照, 次墨莊自題原韻」, 「子午泉詩, 遙寄葉東卿(并序)」. ‘자오천시’에 관해서는 임영길, 「玉壺 李肇源의 『燕薊風煙』과 한중 문인 교유」, 『한문학논집』 57, 근역한문학회, 2019, 270~275면 참조.

1815년 옹수곤이 사망하고, 이어서 1818년 1월 27일 옹방강이 세상을 떠난 뒤에 신위는 1820년 11월 진위 겸 진향 정사로 재차 연행에 나선 한치응에게, 과보수와 섭지선을 만나거든 자신이 옹수곤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옹수곤의 아들 翁引達을 방문해보라고 당부하였다.³⁶⁾ 이어서 1821년 진하사 서장관 尹秉烈에게는 섭지선을 방문해서 옹방강의 『復初齋集』續刻本 2책을 구해오도록 부탁하였다.³⁷⁾

한편 신위가 새로운 청 문사와 시문 교류를 재개한 것은 1823~1824년을 전후한 시점으로 파악된다. 1823년 진하정사 朴宗薰이 신위의 아들 申命準(1803~1842)의 「倪黃合法」 부채 그림과 묵죽화를 북경에 가지고 가서 각각 진용광과 鄧傳密(1796~1863, 초명 尙璽)에게 보여준 것을 계기로 신위의 이름이 북경 문단에 환기된 것이다. 동시에 신명준 역시 ‘小霞’로 일컬어지며 북경 문단에 명성을 알리게 되었다.³⁸⁾ 진용광과 등전밀은 모두 1822년 동지사절단으로 입연한 김정희의 부친 김노경 및 동생 金命禧와 교류했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진용광은 옹방강의 시제자이자 오승량과 사돈지간으로 옹방강의 문인 제자들과 친밀했으며, 역시 옹방강의 제자이면서 자신의 門生인 周達을 매개로 하여 成祐曾(1818년 동지사행), 孫秉周(1821년 동지사행), 李鎭華(1824년 동지사행), 洪羲俊·洪錫謨 부자(1826년 동지사행) 등 조선 문인들과의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다. 등전밀은 전서와 예서의 1인자로 손꼽히던 鄧石如의 아들로 진용광의 집에 寓居하며 김노경·김명희 부자와 교류한 인물이다.³⁹⁾ 박종

35) 申緯, 『警修堂全藁』 冊4, 『蘇齋續筆』, 「送韓勇山尙書(致應)賀至之行」. 아울러 이 시에서 신위는 한치응을 수행하여 입연하는 權永佐(1782~1830)가 북경에서 재능을 떨치고 돌아오리라 기대하였다.

36) 申緯, 『警修堂全藁』 冊8, 『碧蘆坊藁』 五, 「勇山尙書充進香正使入燕, 賦此爲別」 제2수, “戈葉諸生如可見, 爲言紅豆最相思(星原稚子引達今又八歲, 當入小學也, 幸爲之訪問).”

37) 申緯, 『警修堂全藁』 冊9, 『花徑臚墨』 三, 「送歲幣尹書狀(秉烈)入燕」 제3수, “恨未復初收續刻, 憑君搜索向東卿(『復初齋集』原書十三冊外, 又有續刻二冊, 訪問於葉東卿, 可得.).” 신위는 『복초재시집』 선본 편찬 작업을 시작했지만 완정본을 입수하지 못하여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박철상, 앞의 2019 논문, 75~86면 참조).

38) 申緯, 『警修堂全藁』 冊17, 『北禪院續稿』 一, 「伯子命準, 舉進士唱名, 喜賦(二詩)」 제2수, “大小霞稱江浙士, 誰教名姓遠人知(鄧守之·周菊人·張茶農·吳蘭雪皆稱吾夫子爲大小霞.).”

39) 등전밀은 1822년 사은부사 權丕應을 수행한 權復仁(1770~1830)과 교류했는데, 그때 陳沆·龔自珍·魏源 등과 동석한 정황으로 보아 이들과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權復仁, 『隨槎閑筆』 권下, 「塵史」 제2칙 참조).

훈으로부터 진용광 및 등전밀의 시를 전달받은 신위는 차운시를 지어 새로이 목연을 맺게 된 소감을 밝혔다.⁴⁰⁾ 또한 박종훈의 뒤를 이어 동지정사 홍의호가 입연했는데, 홍의호의 조카이자 유취관의 벗⁴¹⁾ 南華中(호 宜山)을 통해 신위와 秋吟 蔣詩(1768~1829)의 교유가 시작되었다.

1832년 李尙迪의 「黃葉懷人圖」⁴²⁾에 쓴 題詩에서 신위는 자신이 교유한 청 문사들을 추억하였다. 시는 내용상 총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상적의 부탁으로 회인시를 짓게 된 계기와 1812년 연행 당시 蘇齋에서의 雅集, 두 번째는 慶豐圖 연회에서의 사귀, 세 번째는 1818년 정월 옹방강의 부고를 접한 이후 청 문사들과의 교제를 각각 회상했으며, 네 번째는 자신이 사귀 중국 벗들을 추억하는 쓸쓸한 소감을 피력하였다. 그중 연행 후 서신으로 교유한 중국 인물들을 읊은 대목을 제시한다.

蘇齋의 이름난 부자를 곡한 뒤로
 누가 미혹함 깨우치고 누가 어리석음 고쳐줄까.
 소재(翁方綱)를 뒤이어 蘭雪이 있고
 金粟과 秋吟이 함께 붓을 잡았네.
 시품은 잘못 蘇軾·黃庭堅이라 추켜 주시고
 아울러 지봉 위 까마귀 사랑하듯 해 주심이 묵죽까지 미쳤네.
 명산에 시집 잘 간직해 달란 부탁 저버릴까 두려웠는데
 금속이 金丹을 깨뜨리고 세상을 떠났네.

40) 申緯, 『警修堂全藁』 冊11, 『花徑贖墨』 九, 「於荳谿判院扇面, 兒子(命準)畫倪黃合法, 宮允陳石士(用光)爲題二絕, 卽用原韻」, 「江南皖人鄧守之(尙璽)以詩求(命準)畫, 戲用其韻, 自題墨竹寄鄧, 遙結一重墨緣(字書, 皖與皖通)」; 陳用光, 『太乙舟詩集』 권11, 「荳溪樞判屬題申小霞〈倪黃合法〉便面, 小霞年十五, 紫霞學士公子」. 진용광은 일찍이 응수곤을 통해서 신위의 시를 접했던 것으로 보인다(陳用光, 『太乙舟詩集』 권9, 「爲翁星源, 題其高麗人申某詩冊」).

41) 박철상, 「貞碧 柳最寬의 燕行과 交遊」, 『다산과 추사, 정벽 유취관』, 추사박물관, 2015, 209~210면. 남화중이 홍의호의 조카임은 김영진, 「滄寧 洪義浩의 燕行에 관한 연구」, 『한문학논집』 55, 근역한 문학회, 2020, 76면.

42) 李尙迪은 1832년 蔣士銓을 모방하여 회인시를 짓고 신위의 아들 신명준에게 「黃葉懷人圖」를 그려 줄 것을 청했다고 한다(『恩誦堂詩集』 권3, 「懷人詩」 서문 참조). 회인시에서 儀克中, 雷文輝, 劉喜海, 韓韻海, 陳克明, 阮常生, 阮福, 吳嵩梁, 姚衡, 葉志詵, 葉名琛, 葉名澧, 黃釗, 陳文述, 丁泰 등 28명의 청 문사들을 읊었다.

추음과 시를 논하며 가장 깊게 사귀었더니
 시집의 서문을 동해 구석진 곳에 부탁했네.
 난설이 만 리 떨어진 곳에서 한번 붓을 휘두르니
 萼綠의 매화가 위로하고 거문고 소리가 위로하네.
 (원주: 난설이 남쪽의 黔州로 갈 때 부인이 그린 「綠梅圖」를 나에게 부쳤다.)
 丁中翰(卯橋)이 누차 시고를 구했고
 鄧孝廉(守之)이 그림을 구했었지.
 熊(雲客)·錙(眉士)·周(菊人)·張(茶農)은 아직 무탈한지.
 별이 하늘 끝에 흩어지고 기러기 종도 끊어졌구나.
 自哭蘇齋名父子，誰爲惺迷誰砭愚。
 蘇齋替人有蘭雪，金粟秋吟並操觚。
 詩品謬以蘇黃詡，墨竹兼之愛屋烏。
 名山付託恐相負，金粟自破金丹殂。
 秋吟最與論詩契，弁卷屬之東海隅。
 蘭雪一麾隔萬里，萼綠梅慰琴音摸。(蘭雪黔南行時，寄余其哲配綠梅圖。)
 丁中翰(卯橋)屢求詩稿，鄧孝廉(守之)曾乞畫厨。
 熊(雲客)·錙(眉士)·周(菊人)·張(茶農)尙無恙，星散天涯斷雁奴。⁴³⁾

위 시에 등장하는 인물은 吳嵩梁(호 蘭雪), 錢林(호 金粟), 蔣詩(호 秋吟), 丁泰(호 卯橋), 鄧傳密(호 守之), 熊昂碧(호 雲客), 劉玟(호 眉士), 周達(호 菊人), 張深(호 茶農) 등 9인으로 1820년대에 신위가 집중적으로 교유한 인사들이다. 이밖에 신위는 조강, 진용광, 진문술 등과도 간접적으로 교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들 가운데 신위의 대청 교류망이 확대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은 장시이다.

장시는 자가 泉伯이고 호가 秋吟이며, 浙江 仁和 사람이다. 紀昀(1724~1805)의 제자로 1805년(嘉慶 10) 진사가 되어 한림원 서길사와 편수로 있으면서 『高宗實錄』 편찬에 참여하고 陝西都監察御史를 지냈으며, 북경에서 法式善, 吳嵩梁, 葉紹本, 錢林, 徐松 등과 자주 詩會를 열고 수창하면서 詩名을 떨쳤다. 신위가 어떤 경로로 장시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는지 분명치 않으나 장시의 「論詩絕句」 일부를 접한 신위가 그에 차운시를 지어서 남화중 편에 먼저 보낸 것을 계기로 두 사람의 교유가

43) 申緯, 『警修堂全藁』 冊19, 『養硯山房』 四, 「題瀉船黃葉懷人圖」.

시작된 듯하다.⁴⁴⁾ 남화중으로부터 신위의 시를 전해 받은 장시는 자신이 그린 산수화 족자와 함께 차운시를 지어 보냈고, 장시의 그림과 시를 전달받은 신위는 장시처럼 詩畫에 性情이 담긴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고 고평하였다.⁴⁵⁾

장시의 「논시절구」 원 제목은 「論唐宋詩，戲作絕句三十首」(1793년작, 『榆西僊館初藁』 권25 수록)이다. 신위가 차운시 두 수를 한 차례 전달한 뒤인 1826년 장시는 「논시절구」 30수 전편을 신위에게 보내주었고, 신위는 사례하는 시를 지어서 장시에게 보냈다.⁴⁶⁾ 장시의 「논시절구」는 신위가 「東人論詩絕句」(1831년작, 『警修堂全藁』 책17 수록)에서 전대 대가들의 작품을 맹목적으로 모의하지 말고 자신의 개성이 담긴 시 세계를 개척할 것을 강조한 詩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는바,⁴⁷⁾ 신위와 장시가 문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장시는 신위의 목죽을 높이 평가하였다. 장시의 문집인 『榆西僊館初藁』에는 1828년 신위와 홍현주에 관해 읊은 시가 여러 편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墨竹歌」란 시에서 장시는 신위를 소식과 황정견에 비견하여 그의 시와 목죽화를 칭송하면서 동해의 墨君堂이라 고평하였다.⁴⁸⁾

신위는 1825년 동지정사 李勉昇을 수행한 南尙敎에게 자신이 그간 교제한 중국

- 44) 蔣詩, 『榆西僊館初藁』 권39, 「朝鮮申紫霞侍郎(緯)未曾識面, 和余論詩卅絕之二, 屬南宜山茂才(華中), 遠寄索畫, 卽用和韻, 題之」. 남화중은 장시에게서 받은 詩畫硯을 신위에게 선물하기도 하였다(『警修堂全藁』 冊12, 『紅蠶集』 一, 「蔣秋吟詩畫硯歌(秋吟面交碧霞, 贈宜山者, 宜山又轉贈余, 爲作長歌記之)」).
- 45) 申緯, 『警修堂全藁』 冊12, 『紅蠶集』 一, 「秋吟見惠山水畫幀自題二詩, 卽用原韻, 續題幀側, “古今相接了無垠, 先立門牆便失真. 自有江西與浙派, 難逢詩畫性情人.” 其二, “烟雨空濛筆墨臻, 江南生得畫中身. 一塵不染藍田叔, 難道秋吟是澗人.”
- 46) 申緯, 『警修堂全藁』 冊13, 『紅蠶集』 五, 「今年春間, 蔣秋吟寄示論唐宋人詩絕句三十首全本, 以此爲謝」.
- 47) 자세한 내용은 이현일, 「紫霞 申緯의 「東人論詩絕句三十五首」 다시 읽기」, 『한국한문학연구』 83, 한국한학회, 2021, 343~349면 참조. 이 논문에 따르면 신위가 장시에게 먼저 차운하여 보낸 시는 통행본 『警修堂全藁』에는 실려 있지 않고, 일본 東洋文庫 소장 『警修堂詩選』에 수록되어 전한다.
- 48) 蔣詩, 『榆西僊館初藁』 권42, 「墨竹歌」, “…… 紫霞山人今蘇黃, 作畫尤擅文同長. 寫竹碧蘆吟舫裡, 人稱東海墨君堂. ……” 장시는 「畫竹爲劉生(石臣), 竝寄刊稿贈之」란 시에서 “去年雞林申紫霞, 貽我墨寫竹一幅.”이라 하여 신위가 1827년 자신에게 목죽화 한 폭을 주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후 1828년 신위는 장시의 『유서선관초고』를 입수해서 이 시를 보았다(『警修堂全藁』 冊15, 『江都錄』 一, 「蔣秋吟今年續寄稊稿四十二卷, 卷中有專咏拙畫墨竹詩, 次韻爲謝」).

인사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장시의 시집이 간행되었다면 반드시 구해올 것을 강조하였다.⁴⁹⁾ 남상교는 홍현주, 이명오, 李晩用, 丁學淵 등과 신위의 집에 모여 시회를 갖던 동인 중 한 사람으로, 북경에 가서 주달, 吳思權, 蔡逸, 熊寶書, 方鐵沈 등과 교제했는데,⁵⁰⁾ 남상교가 주달과 조강을 만난 데에는 신위의 소개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 여겨진다. 1826년 1월 6일 남상교 일행을 만난 주달은 자신과 사귄 조선 문인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신위의 이름을 언급했고,⁵¹⁾ 남상교를 만난 조강은 주달이 보여준 신위의 시첩을 낭송하고 나서 시첩 말미에 識를 남기기도 하였다.⁵²⁾ 조강은 1812년 신위가 북경에 당도했을 무렵 우루무치로 귀양을 가는 바람에 신위와 직접 만나지 못했으나 1819년경 해배된 후⁵³⁾ 북경에 머물며 주달을 통해 이미 신위의 시를 접했던 것이다.

장시는 1829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조선의 洪羲俊·洪錫謨 부자(1826년 동지사행), 李壽民(1828년 진하사행), 朴思浩(1828년 동지사행) 등과 만나 교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신위는 장시의 벗이자 오승량과 同榜인 錢林(1762~1828), 장시의 집에 우거하던 熊昂碧(?~1850)과 교분을 맺었고, 웅양벽을 통해서 丁泰(1784~1830)와도 교분을 맺을 수 있었다.⁵⁴⁾ 전림과 웅양벽은 모두 장시와 동향인 절강 인화 출신의

49) 申緯, 『警修堂全藁』 冊12, 『紅蠶集』 三, 「南雨村進士從溪院判入燕, 話別之次, 雜題絕句, 多至十三首, 大半是懷人感舊之語, 雨村此次, 與諸名士遊, 到酣暢, 共出而讀之, 方領我此時心事」 제6수, “新詩正急鷄林購, 莫惜遙遙度繡針。(蔣·陳二公, 如有現刻詩集, 雨村此次必覓來, 藝林快事也.)” 이 시에서 신위는 조강, 오승량, 등전밀, 진용광, 주달을 거론하고, 오승량의 친구 張寶(자 仙槎)도 함께 언급하였다.

50) 남상교와 청 문인의 교류 양상을 살핀 연구로 박우훈, 「雨村 南尙敎의 淸 文人과의 交遊」, 『동아인문학』 29, 동아인문학회, 2014이 있다. 1836년 신위는 吳思權이 韓鎭庭에게 전해준 蔡逸의 『茜雲樓詩存』 1책과 詩帖을 읽고 남상교와 오사권·채일의 교류를 상기하며 시를 짓기도 하였다(申緯, 『警修堂全藁』 冊24, 『祝聖四藁』, 「題蔡逸史詩帖後(四首○并序)」).

51) 저자 미상(杞泉), 『隨槎日錄』 1826년 1월 6일, “又問我國諸名公安否, 若洪澗園(義浩)·朴荳溪(宗薰)·申紫霞(緯)·趙北海(鍾永), 皆其契好, 其餘名流相知者亦多.”

52) 저자 미상(杞泉), 『수사일록』 1826년 1월 20일, “主人出示申紫霞詩筆小帖, 曹卽浪誦一遍, 索筆題其尾云: ‘某年月穀日, 海上曹江玉水快讀一過.’ 觀其筆意流麗, 氣度閑逸, 眞名流也.”

53) 임영길, 앞의 2018 논문, 45면의 주 58번 참조.

54) 丁泰는 일찍이 熊昂碧의 집에서 신위의 시화를 본 뒤로 멀리서나마 神交를 맺기를 원하였다(申緯, 『警修堂全藁』 冊16, 『九十九菴吟藁』 二, 「丁卯橋中翰(泰), 於雲客齋中見余詩畫, 口占一絕句, 遙訂神交, 久而未復, 追次原韻(卯橋, 浙江人)」).

시인으로, 먼저 전림의 경우 1826년 동지정사 申在植이 전림의 「論詩絕句」 및 신위의 회인시에 부친 절구 2수를 신위에게 보여줌으로써 교제가 시작되었다.⁵⁵⁾ 전림이 신위의 시를 접한 경로는 바로 장시를 통해서인데, 비록 신위와 전림이 교분을 맺은 지 1년 후인 1828년 전림이 세상을 떠나 교유 관계를 지속하진 못했지만, 장시가 전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輓詩에서 신위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 짧은 기간 동안 신위가 전림과 깊은 우정을 맺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⁵⁶⁾ 아울러 신위는 오송량의 서신을 통해 전림의 부고를 접하고 7언절구 3수를 지어 애도했는데, 제1수와 제3수에서 장시가 지은 만시의 내용까지 거론한 점으로 미루어 신위와 북경의 지인들이 실시간으로 서로의 근황을 공유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⁷⁾

다음으로 웅양벽은 1826년 동지사절단을 통해 서신과 함께 자신의 시집 『雲客詩鈔』를 신위에게 전달하면서 양측의 교유가 이루어졌다.⁵⁸⁾ 그 무렵 웅양벽은 장시의 집에 머물며 동지정사 洪羲俊, 그의 아들 洪錫謨와 교유했는데, 홍희준·홍석모 부자는 웅양벽을 매개로 하여 張祥河(1784~1861)와 조강, 그리고 장시의 아들 蔣鉞 및 장시의 벗 劉政과도 교제했으며, 또한 장상하와 조강을 매개로 하여 김정희에게 조강을 소개해준 徐松, 그리고 양호과 문인 陸繼輅(1772~1834) 등과 교제하였다.⁵⁹⁾

55) 申緯, 『警修堂全藁』 冊14, 『倉鼠存藁』 二, 「翠微副使歸示錢金粟學士(林)近體雜詩, 有論詩絕句, 又有題余懷人詩後二絕句, 故各用其, 以埃冬使, 附寄金粟爲謝」 및 『詩夢室小草』 一의 서문 참조. 전림의 『玉山草堂集』 권25에 「論詩絕句六十四首」(1814년작)가, 권30에 「題朝鮮申緯侍郎懷人詩後」 2수(1826년작)가 실려 있다.

56) 蔣詩, 『榆西僊館初藁』 권42, 「輓錢學士(金粟)」, “未了事完才易簣, 屬將舊句寄雞林(寄申紫霞).”

57) 申緯, 『警修堂全藁』 冊15, 『江都錄』 一, 「輓錢金粟學士」 제1수, “詞場慟惜認同情, 蘭雪秋吟遠寄聲. 來去了然徵慧業, 雲山北向是蓉城(蘭雪札云, 錢金粟學士, 已歸道山, 去來殊自了了, 足徵慧業. 秋吟輓詩, 要由三晉去, 蓉城自注, 歿云赴山西.)” 其三, “詩卷東來迸淚吟, 他生酬否此生心. 誰知海外神交在, 不朽名山付託深.(金粟臨終, 于託秋吟以詩卷寄紫霞, 故秋吟輓詩云, 未了事完才易簣, 屬許舊句寄雞林.)”

58) 申緯, 『警修堂全藁』 冊14, 『倉鼠存藁』 二, 「熊露蕤(昂碧)雲間名士也, 今春節使回, 貽書證交, 且寄四絕句, 秋杪始得發函, 次韻謝答」. 『경수당전고』에 웅양벽 관련 시로 冊14, 『詩夢室小草』 一, 「自題紫霞山莊圖, 寄熊雲客」, 「次韻答松江熊雲客(昂碧)見懷(二首)」; 冊16, 『九十九菴吟藁』 二, 「戊子間, 熊雲客(昂碧)題余紫霞山莊圖, 有長歌三十句, 時余職事軼掌, 不遑屬和, 自歸山莊, 舊懷縈心, 乃發篋出此詩, 臨風朗讀, 多有根觸, 始依韻和成, 然秋吟已逝, 未知雲客向能主蔣氏西席否, 俟訪的信, 將以寄示也」가 더 있다.

59) 洪錫謨, 『游燕藁』 地, 「贈熊雲客昂碧(熊雲客, 名昂碧, 字露蕤, 雲客其號也. 江蘇省松江府金山縣人, 來京師, 寓於蔣秋吟侍御宅. 卽詩酒豪放之士也. 得與訂交於秋吟齋中, 書此贈之)」, 「二十一日詩

이처럼 19세기 조선과 청 양국 문인들의 교류망은 개인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특정한 집단에서 공유되어 많은 구성원이 직·간접적으로 교류에 참여함으로써 동인적 모임의 양상을 띠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19세기 전반 조·청 교류망이 확장되는 데 장시와 웅양벽이 크게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기할 점은, 조선 측에서 신위를 통해 李學達(1770~1835)가 웅양벽의 시집을 읽고 나서 웅양벽의 시에 강개한 기운이 있다고 평한 사실과⁶⁰⁾ 신위의 제자 朴永輔(1808~1872)가 신위로부터 『운객시초』를 전해 받아 소장한 사실이다. 더불어 웅양벽을 통해서 그의 벗 張文虎(1808~1885)가 신위의 글씨를 접하고서 평을 남기기도 하였다.⁶¹⁾ 조선의 이학규와 박영보, 그리고 청의 장문호는 모두 상대국 문인을 직접 만난 적이 없으므로, 이는 조·청 교류망이 간접적으로 확대되어 양국 문단이 문예 방면에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 간 사례로 주목된다.

한편 신위가 장시를 통해서 陳文述(1771~1843)과 간접적으로 교류한 일은 특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⁶²⁾ 진문술은 오송량, 장시 등과 친밀한 사이로 1828년 장시의

齡張舍人祥河宅走和一絕(張舍人, 名祥河, 字元卿, 號詩齡, 今官內閣中書舍人, 松江府華亭縣人. 寓居宣武門外春樹胡同, 因熊雲客, 往會結交, 詩齡卽席賦詩以贈, 故和), 「奉贈曹玉水中書江(曹玉水, 名江, 御史劬亭錫寶之子, 松江府上海縣人, 廕生今官內閣中書, 寓居宣武門外官萊園上街. 因熊雲客, 往訪訂交, 與余同辛丑年生也)」, 「二十七日詩齡宅餞席, 與曹玉水·徐星伯約會, 陸祁孫追到共賦(徐星伯, 名松, 今官內閣中書舍人, 直隸省順天府大興縣人. 因詩齡·玉水, 約會訂交, 與余同辛丑生. 陸祁孫, 名繼輅, 前任知縣, 江蘇省常州府陽湖縣人. 與詩齡·玉水, 同鄉文士也, 追後來會)」, 「蔣少泉鉞宅, 與熊雲客·劉眉士玆會話, 和贈少泉別詩二首(蔣少泉, 名鉞, 字左之, 少泉其號也. 秋吟侍御詩之第二子, 浙江省杭州府仁和縣人, 寓居宣武門外棉花下七胡同. 昔在甲寅(1794), 家君與秋吟相面於紀曉嵐門下, 其時曉嵐作王考詩文集序以贈, 卽秋吟筆也. 秋吟以南城監察御史, 罷官歸鄉, 少泉獨住京寓, 屢訪叙舊, 少泉臨別贈詩, 故依韻和之. 劉眉士, 卽錢塘縣人, 與少泉同鄉, 雲客相好, 約會于此, 與之結交, 余之同年生也)」.

60) 李學達, 『洛下生集』 책19, 『卻是齋集』, 「題熊雲客詩卷後(小序)」.

61) 張文虎, 『舒藝室雜著』乙編 권下, 「記高麗人書畫」, “高麗人申緯行書劉眉士書盟歌二紙, 李(ㄱ+勉) 艸書出師表二紙, □齋長安寺圖絹本一幅, 權園雜寫意小品絹本四幅. 緯號紫霞, 官判書, 官翰林供奉, 嘗先後奉使來朝, 與熊丈露葵相唱和. …… 歲己酉(1849)秋九, 訪熊丈南塘, 出此以眎日, ……” 참고로 장문호는 웅양벽 사후에 그의 시집을 간행하고 서문을 쓴 인물이다(張文虎, 『舒藝室詩存』 권2, 「海棠巢剩稿序」).

62) 이현일, 「조선후기 경화세족의 이상적 여성상-申緯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368-375면; 박무영, 「조선후기 韓·中 교류와 젠더담론의 변화-徐令壽閣의 중국 반출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45, 한국고전문학회, 2014, 221-227면에서 진문술과 신위·홍현주의 교류 사례를 주목하였다.

집에서 신위와 홍현주의 작품을 접하고 「朝鮮二賢詩, 聞秋吟誦申紫霞·洪海居詩文作」(『頤道堂詩選』 권25 수록)란 시를 지은 바 있다. 진문술은 신위와 홍현주를 조선의 ‘二賢’으로 병칭하며 두 사람의 명성과 문장이 중국에 전해진 지 오래되었다고 하였다. 동시에 자신이 편찬한 『畫林新詠』 補編에 신위의 墨竹과 홍현주의 墨菊을 편입한 후 즉시 신위에게 보냈다. 여기서 진문술이 『화림신영』에 수록한 신위와 홍현주의 그림은 바로 장시가 소장했던 그림으로 여겨진다.⁶³⁾ 단 진문술이 『화림신영』을 신위에게 발송하고자 한 시점은 1829년이지만, 진문술→장시→정태→마광규를 거쳐 3년 뒤인 1832년에야 신위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⁶⁴⁾ 『화림신영』이 신위에게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진문술은 오승량의 인맥을 이어받아 자신이 오랜 한묵의 인연을 잇게 되었다고 슬회했으며,⁶⁵⁾ 신위는 『화림신영』을 토대로 중국의 문인 화가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었다.⁶⁶⁾

1830년 가을에 장시의 부고를 접하고⁶⁷⁾ 오승량이 검주 지주가 되어 북경을 떠난 뒤, 신위는 여행을 떠나는 鄭元容(1831년 동지사행), 徐畊輔·徐眉淳(1832년 동지사행), 李止淵(1833년 진위 겸 진향사행), 趙斗淳(1835년 동지사행), 權敦仁(1836년 진하사행), 徐容淳·李時在(1837년 동지사행) 등에게 중국 벗들의 근황을 꾸준히

-
- 63) 蔣詩의 『榆西僊館初藁』 권4에 「題畫竹(申紫霞寫)」, 「題山水便面(洪海居畫)」, 「題墨菊便面」 등의 시가 실려 있다. 다만 현재로선 신위와 홍현주의 기사가 수록된 『화림신영』의 판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64) 申緯, 『警修堂全藁』 冊18, 『養硯山房藁』 二, 「錢塘陳雲伯(文述)有朝鮮二賢詩, 自注曰聞秋吟侍御誦申紫霞·洪海居詩文而作, 今年並其所刻畫林新詠二冊, 自馬教習(光奎)所寄來, 馬教習言庚寅(1830)夏, 蔣秋吟子(鉞)還浙鄉時, 留書曰敝同里人陳雲伯先生, 寄紫霞·海居兩先生信件. 乞轉致之, 此書留於丁舍人(泰), 舍人又歿. 今春始自馬教習寄來. 遠信浮沉. 屢經存歿. 三年然後竟能入手. 亦四海奇緣也. 卽次原韻」, 「陳雲伯畫林新詠, 補入不佞墨竹及海居都尉墨菊, 各有小傳, 故卽次卷中原韻謝之」. 『화림신영』을 최종적으로 신위에게 전해준 사람은 아마도 이상적인 듯하다(李尙迪, 『恩誦堂詩集』 권3, 「懷人詩(有序)」, 〈陳雲伯(文述)〉(1832년작), “…… 四海申紫霞, 頂禮畫林卷.”). 참고로 홍현주 역시 신위의 집에서 『화림신영』을 보았다고 밝혔다(洪顯周, 『海居齋詩鈔二集』 권1, 「蘆舫月夜集同人作」 제1수, “畫林分寄徵頤道(浙江人陳文述作『畫林新詠』三編, 一寄紫霞, 又寄余, 首卷各題一絕, 以徵余與霞入於畫林中意也. 文述, 號頤道.”).
- 65) 陳文述, 『碧城仙館春明新詠』, 「聞東國使臣載余書集, 歸貽洪海居·申紫霞兩君, 喜賦一律」.
- 66) 申緯, 『警修堂全藁』 冊20, 『楸軒集』 一, 「余於鷺谷, 借得錢塘屠孟昭(倬)是程堂初集, 車中披閱, 有懷其人(二首)」. 신위는 屠倬의 『是程堂初集』을 『화림신영』에서 보았다고 슬회하였다.
- 67) 申緯, 『警修堂全藁』 冊16, 『九十九菴藁』 二, 「哭蔣秋吟御史(五首)」.

수소문하는 한편으로,⁶⁸⁾ 역관 이상적을 통해서 북경 문단의 동향을 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진하정사 권돈인에 의해 「綠意吟詩圖」가 북경 문단에 전파됨으로써 신위는 郭儀霄(1775~?), 黃爵滋(1793~1853), 艾暢(1787~?), 周誠之와도 목연을 맺었다. 1830년대 북경에는 황작자를 중심으로 일련의 문사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광의소와 애창은 황작자의 詩友이다. 신위는 황작자를 위시한 북경 시단의 동인들과도 소통한 것이다.

또한 신위는 1832년 儀克中(1796~1837)의 「苔岑雅契圖」와 韓韻海의 그림에 시를 써주고, 1836년에는 端木國瑚(1773~1837)가 보낸 鍾大源의 『東海半人詩鈔』와 祝昌奎의 「漢臯解佩圖」를 품평한 시를 지었으며, 1840년에는 王鴻(1806~?)의 「盜詩圖」에 시를 써주었다.⁶⁹⁾ 특히 왕홍의 「도시도」는 이상적을 거쳐 신위에게 전해진 후 李裕元(1814~1888)과 박영보에게도 공유되어 간접적으로 조·청 교류망이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⁷⁰⁾ 의극중, 한운해, 단목국호, 왕홍 등은 모두 이상적과 일정 기간 교제를 지속한 인물들이다. 이상적이 청 문사들에게서 받은 서신을 모은 『海隣尺素』를 살펴보면 왕홍을 비롯하여 汪喜孫(1786~1847), 張曜孫(1808~1863) 등이 이상적을 통해 신위와 소통하기를 희망하고 있어,⁷¹⁾ 중국에서 신위의 명성이 꾸준히

68) 申緯, 『警修堂全藁』 冊18, 『北禪院續藁』 四, 「經山閣學充賀至使入燕索詩, 故賦此爲別」; 冊19, 『養硯山房』 四, 「送徐卯翁尙書奉使入燕(二首)」; 冊21, 『北轅集』 二, 「因竹垞回, 始知翁蘇孫無恙, 喜而有述」; 冊21, 『和陶詩屋小藁』, 「希谷使回, 始得葉東卿武部答書, 喜而有述」; 冊22, 『山房紀恩集』 二, 寶蘇二字印, 竹垞進士自燕携歸者, 問庵秘書摹刻, 轉歸於僕, 遂與石樓書樓印, 同爲齋中之用, 是不可無詩, 拈韻賦示問菴」; 冊23, 『祝聖二藁』, 「余選復初齋詩之役, 已過十年, 迄未告竣, 竹垞進士贈是集原刊合續刻重裝本, 而前闕陸序, 後缺儂笙續刻甲戌至丁丑之作, 此亦未可謂完本也, 但題余小照之什, 宛在續刻中, 差幸掛名其間, 所可恨者, 題拙畫墨竹詩則竟逸而不見耳, 書此以示竹垞(五首)」, 「又寄心菴閣學一絕」; 冊24, 『祝聖四藁』, 「去年余爲彝齋尙書, 題綠意吟詩圖, 彝齋携入燕, 見賞於諸名士, 多有篇詠, 余又逐和之, 以證四海墨緣, 凡五首」; 冊25, 『祝聖七藁』, 「追寄徐景九進士(容淳)遊燕之行」 등.

69) 申緯, 『警修堂全藁』 冊19, 『養硯山房藁』 三, 「苔岑雅契圖(三首)」, 「爲瀉船次韻韓季卿(韻海)扇頭紅梅白楊山人法(三首)」; 冊24, 『祝聖四藁』, 「贈別藕船入燕(二首)」, 「端木鶴田(國瑚)素味余, 而緘寄其亡友海寧鍾筭溪(大源)詩集, 集日東海半人詩鈔, 凡八冊, 蓋屬余以不朽也, 爲題此詩, 以謝來意(三首)○鶴田時官內閣中書, 深於易學, 與筭溪同是儀徵阮公門人」, 「題祝小阜(昌奎)漢臯解佩圖(二首)○小阜即枝山後孫, 善雙鉤書, 此圖乃爲汾西作, 而藕船所轉贈余者」; 冊27, 『覆瓿集』 四, 「題王子梅(鴻)盜詩圖(并序)」; 冊27, 『覆瓿集』 六, 「送瀉船入燕」 등.

70) 李裕元, 『嘉梧藁略』 책2, 「題盜詩圖」; 朴永輔, 『雅經堂詩盛集』 卷第四, 「採菊詩草」 四, 「題王子梅(鴻)盜詩圖(并序)」.

회자되는 데 이상적이 일정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IV. 맺음말

1864년 신위의 후배 문인 申佐模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희와 신위의 연행 이후 북경 인사들이 시로는 신위를, 글씨로는 김정희를 으뜸으로 여겼다고 한다.⁷²⁾ 신위의 시는 북경 현지의 시장에서 거래되었을 정도로⁷³⁾ 청 문사들의 인정을 받았다. 신위는 한·중 문화 교류의 최전선에 서서 연행 이후에도 꾸준히 청조 문예의 경향을 조선에 전해주었다. 동시에 자신의 주변 문인들을 북경의 벗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대청 교류 망을 확장해나갔다. 신위의 연행은 노론 중심의 경화세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론·남인계 문인들과 중인층 시인들이 북경 문단과 소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신위의 벽로방에서 朴著壽·朴齊喆·朴齊兢 부자, 洪顯周, 李復鉉, 李晩用, 洪祐吉, 洪成謨, 丁學淵, 李海遠, 李之衡, 申命準·申命衍 형제, 柳本學·柳本藝 형제, 徐眉淳, 韓在洛 등이 모여서 오승량의 『香蘇山館詩集』을 열람하고 차운시를 지은 사례,⁷⁴⁾ 이만용이 옹방강의 『嵐漪小艸』와 『栖霞小稿』를 소장한 사례,⁷⁵⁾ 박영보가 옹양벽의 『운객시초』를 소장한 사례 등은 직접 연행한 경험이 없더라도 조선의 문인들이 청조 문인의 시집을 향유하고 감상하는 일이 보편적이었음을 말해준다. 즉 신위의 영향으로 홍현주, 남상교, 이명오, 이만용, 이학규, 박영보 등이 청 문단의 최신 동향을 파악

71) 이상적 엮음, 정후수 옮김, 『북경편지』, 사람들, 2017, 왕희손의 제5신(1837), 장요손의 제9신(1842)·제18신(1843)·제20신(1845), 왕홍의 제22신(1845 이후) 참조.

72) 申佐模, 『澹人集』 권6, 梅社舊雨集(并序二〇甲子), 「復疊, 寄東還三行人雨田鄭學士(顯德)」, 「詩盡燕人說紫霞, 書於秋史愛欵斜.」

73) 申緯, 『警修堂全藁』册12, 『紅蠶集』四, 「余客有金榮者, 於燕市購回拙書蕙芬絕句一幀, 戲爲記之.」

74) 李尙迪, 『恩誦堂詩集』 권3, 「菊秋旣望夜, 雅集紫霞侍郎碧蘆吟舫, 次香蘇館集(是夜會者朴雨蕉侍郎·洪海君駙馬·李石見復鉉明府·李東樊晩用·洪春山祐吉·洪葯農成謨·丁西山學淵·李石顛海遠·李谿堂之衡·雨蕉二哲嗣琴垞齊喆·靑棠齊兢·紫霞二哲嗣小霞命準·藹春命衍·柳問菴本學·樹軒本藝昆季·徐竹垞眉淳·韓瀟人在洛).」

75) 朴永輔, 『雅經堂詩初集』卷第五, 『西泠小艸』一, 「東樊書齋, 得翁覃溪『嵐漪小艸』及『栖霞小稿』, 於驢背展閱, 因唐突一貴人, 亦以清狂見恕, 行至藥峴, 了讀一卷, 翌日系一詩以還之.」

한 것은 19세기 조선에서 청 문단과 실시간으로 소통했음을 방증한다.

신위와 청 문단의 교유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18세기 후반 강세황·박제가와 옹방강의 교유에서 출발하여 19세기 초 김정희와 옹방강·옹성원 부자 및 그 동인들의 교유가 신위를 거쳐 심상규, 김노경·김명희 부자, 남상교, 신재식, 이상적, 권돈인 등에게로 연결됨으로써 1810~1820년대 옹방강의 문인 제자들, 그리고 1830년대 황작자를 위시한 문사 집단과의 교유로 이어지는 조·청 교류망의 주요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신위의 교유 양상과 홍현주의 교유 양상을 함께 놓고 보면 1820년대 조선과 청 문단 교유의 지형도에 나타난 동인적 경향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즉 동일하게 서신을 통해 청 문사들과 ‘신교’를 맺었으나 신위와 홍현주의 교유 양상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신위는 귀국 후 옹방강·오승량과 관계를 맺고 있던 문사들과 교제했지만 홍현주는 그 외에 陶澍(1778~1839) 및 도주와 동방인 卓秉恬(1782~1855)과 교분을 맺었다. 도주는 權永佐와 許櫟(호 澹宕)을 매개로, 탁병염은 정원용을 매개로 교유했는데 신위가 이들과 교유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홍현주는 姜潛을 매개로 하여 江文鐸, 容照, 史襄齡, 李華祺 등과도 교유하였다. 이처럼 19세기 전반에는 조선의 김정희 그룹과 청의 옹방강 그룹이라는 교류망에 여러 군소 지류가 합류, 가세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둘째, 李璋煜(1784~1857)과 같은 금석학자와 신위와의 교유 양상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신위가 시인이자 화가였기 때문에 관심사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신위와 마찬가지로 시와 그림에 특징이 있던 홍현주는 형 洪奭周가 1831년 사은정사로 북경에 갔을 때 이장욱과 교유한 인연을 발판으로 서신과 함께 자신의 시집인 『海居齋詩鈔』를 이장욱에게 보냈다. 홍현주는 1832년 청 문사들에게 증정하기 위한 용도로 『해거재시초』(3권 1책)를 聚珍字로 간행하여 연행을 떠나는 지인들 편에 보내어 여러 청 문사들의 평을 받았을뿐더러 『豐山世稿』와 『永嘉三怡集』을 두루 선물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홍현주는 신위와 차별되는 중국 내 교류망을 형성해나갈 수 있었다.

“19세기 초 경화 문단에는 청과 국경을 초월하여 문예 동인적 관계를 유지하는 동인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⁷⁶⁾으며, “중국의 여성 예술가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조선

76) 박무영, 앞의 2014 논문, 222면.

내에서도 이미 동인적 집단이 일정하게 공유하는 태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⁷⁷⁾라는 점이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19세기 신위와 동일한 대청 교류망을 공유했던 일련의 문인 그룹의 작시 경향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청대 시풍과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작업은 별고를 기약하고자 한다.

투고일: 2021.10.10

심사일: 2021.11.26

게재확정일: 2021.12.13

77) 박무영, 앞의 2008 논문, 130~147면.

참고문헌

- 權復仁 著, 김영진·임영길 역 『(국역) 隨槎閑筆·椒蔗續編』,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8
- 金祖淳, 『楓臯集』, 『한국문집총간』 289, 한국고전번역원
- 朴思浩, 『燕薊紀程』, 『연행록전집』 85~86, 동국대출판부, 2001
- 朴永輔, 『朴永輔全集』,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9
- 申緯, 『警修堂全藁』, 『한국문집총간』 291, 한국고전번역원
- 申佐模, 『澹人集』, 『한국문집총간』 309, 한국고전번역원
- 沈象奎, 『斗室存稿』, 『한국문집총간』 290, 한국고전번역원
- 李明五, 『泊翁詩鈔』, 『한국문집총간』 속102, 한국고전번역원
- 李尙迪, 『恩誦堂集』, 『한국문집총간』 312, 한국고전번역원
- 이상적 엮음, 정후수 옮김, 『북경편지』, 사람들, 2017
- 李裕元, 『嘉梧藁略』, 『한국문집총간』 315, 한국고전번역원
- 李鼎受, 『游燕錄』, 『연행록속집』 123~126, 상서원, 2008
- 李學達, 『洛下生集』, 『한국문집총간』 290, 한국고전번역원
- 鄭元容, 『經山集』, 『한국문집총간』 300, 한국고전번역원
- 趙秉鉉, 『成齋集』, 『한국문집총간』 301, 한국고전번역원
- 洪錫謨, 『游燕藁』, 『연행록속집』 129, 상서원, 2008
- 洪顯周, 『海居齋詩鈔』, 서울대 규장각 소장
- 미상(磬山), 『入燕記』, 『연행록속집』 122, 상서원, 2008
- 미상(杞泉), 『隨槎日錄』, 『연행록속집』 128, 상서원, 2008
- 吳嵩梁, 『香蘇山館詩鈔』, 『清代詩文集彙編』 482, 上海古籍出版社, 2010
- 張文虎, 『舒藝室雜著』, 『舒藝室詩存』, 『清代詩文集彙編』 630, 上海古籍出版社, 2010
- 蔣詩, 『榆西僊館初藁』, 『清代詩文集彙編』 488, 上海古籍出版社, 2010
- 錢林, 『玉山草堂集』, 『清代詩文集彙編』 469, 上海古籍出版社, 2010
- 陳文述, 『頤道堂詩選』, 『清代詩文集彙編』 504, 上海古籍出版社, 2010
- _____, 『碧城仙館春明新詠』, 中國國家圖書館 소장
- 陳用光, 『太乙舟詩集』, 『清代詩文集彙編』 489, 上海古籍出版社, 2010
- 손팔주, 『申緯研究』, 태학사, 1983
- 이춘희, 『19세기 한·중 문학교류:李尙迪를 중심으로』, 새문사, 2009
- 정민,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문예공화국』, 문학동네, 2014
- 정혜린, 『추사 김정희와 한중일 학술 교류』, 신구문화사, 2019

- 藤塚鄰 著, 박희영 역, 『추사 김정희 또다른 얼굴』, 아카데미하우스, 1994
- 벤저민 엘먼 지음, 양희웅 옮김,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예문서원, 2004
- 徐雁平 편저, 『清代文學世家姻親譜系』, 鳳凰出版社, 2010
- 袁行雲 著, 『清人詩集敘錄』, 人民文學出版社, 2016
- 금지아, 「朝鮮 申緯의 『奏請行卷』 연구:燕行과 翁方綱과의 文墨緣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1, 열상고전연구회, 2005
- 김기완, 「한중교유와 19세기 거주지 재현 예술」, 『한국한문학회』 51, 한국한문학회, 2013
- 김동준, 「續北征詩」, 李時秀가 시로 쓴 연행기」, 『서지학보』 25, 한국서지학회, 2001
- 김영진, 「澹寧 洪義浩의 燕行에 관한 연구」, 『한문학논집』 55, 근역한문학회, 2020
- 김현권, 「김정희파의 한중회화교류와 19세기 조선의 화단」,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0
- 박무영, 「18-19세기 중국 여성예술가의 소식과 조선의 반응」,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학회, 2008
- _____, 「조선 후기 韓·中 교유와 젠더담론의 변화-‘徐令壽閣’의 중국 반출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45, 한국고전문학회, 2014
- 박우훈, 「李時秀의 연행장시 『續北征』 연구」, 『한국시가연구』 5, 한국시가학회, 1999
- _____, 「兩村 南尙敎의 淸 文人과의 교유」, 『동아인문학』 29, 동아인문학회, 2014
- 박철상, 「貞碧 柳最寬의 燕行과 交遊」, 『다산과 추사, 정벽 유취관』, 추사박물관, 2015
- _____, 「紫霞 申緯의 燕行과 翁方綱의 영향」, 『한국한문학회』 75, 한국한문학회, 2019
- 박현규, 「청 翁方綱 소장 蘇軾 『天際烏雲帖』과 조선 申緯의 結緣」, 『한중인문학연구』 12, 한중인문학회, 2004
- 신일권, 「신위의 청나라 연행 이후에 나타난 시의 특징-고증적 성향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64, 한국문학회, 2013
- _____, 「申緯의 삶과 시세계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15
- 안순태, 「남공철 연행록 연구」, 『국문학연구』 39, 국문학회, 2019
- 이현일, 「조선 후기 경화세족의 이상적 여성상-申緯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학회, 2009
- _____, 「紫霞 申緯의 漢詩史的 위상과 文藝觀」, 『한국한문학회』 75, 한국한문학회, 2019
- _____, 「紫霞 申緯의 『東人論詩絕句三十五首』 다시 읽기」, 『한국한문학회』 83, 한국한문학회, 2021
- 임영길, 「19세기 전반 연행록의 특성과 조·청 문화 교류의 양상」,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8

- _____, 「玉壺 李肇源의 『燕薊風煙』과 한중 문인 교류」, 『한문학논집』 57, 근역한문학회, 2019
- _____, 「洪顯周와 淸 문단의 神交와 그 의미」, 『동방한문학』 87, 동방한문학회, 2021
- 정은주, 「1812년 진주겸주청사행과 한중목연-자하 신위와 정벽 유취관을 중심으로」, 『다산과 추사, 정벽 유취관』, 추사박물관, 2015
- 정은진, 「표암 강세황의 여행체험과 문예활동」, 『한문학보』 25, 우리한문학회, 2011

Aspects of Communication between Shin Wi and Chinese Litterateurs

— Focused on after the travel to Beijing in 1812

Yim, Young-gil

This paper is a comprehensive summary of the aspects of communication between Shin Wi and Chinese litterateurs. In 1812, Shin Wi went to Beijing as the secretary of envoy, and met Weng Fanggang, who was the chief of the literary troupe of the time, and his son Weng Shukun, then had friendship with them. Also he visited Weng Fanggang's study and had a companionship with Ye Zhishen, Wang Ruhan and Zhu Henian under Weng Fanggang. Following Kim Jeong-hui, Shin Wi laid the foundation for expanding the human exchange network not only for himself but also for Joseon and China in the future by exchanging with scholars who were at the center of Beijing's literary.

After the travel in 1812, Shin Wi actively utilized Sim Sang-gyu, Han Chi-ung, Hong Ui-ho, Bak Jong-hun, Nam Sang-gyo, Sin Jae-sik, etc., the acquaintances, who were leaving to Beijing to get the latest trends in Beijing litterateurs. Meanwhile, he made friendship with Wu Songliang, the student of Weng Fanggang, as well as Jiang Shi, Qian Lin, Xiong Yangbi, Chen Wenshu, Chen Yongguang, Deng Chuanmi, Zhou Da, Zhang Shen, and etc. by exchanging letters. The acquaintance with them was intensive in the 1820s, and among them, Jiang Shi played the biggest role in expanding Shin Wi's exchange network. It is figured out that Shin Wi had ties with Qian Lin, Xiong Yangbi and Chen Wenshu through Jiang Shi.

Afterwards, in the 1830s and 40s, he wrote poems to Yi Kezhong, Han Yunhai, Duanmu Guohu, Wang Hong, etc., through I Sang-jeok, a Chinese interpreter, and indirectly communicated with them. Shin Wi took the role of being at the forefront of communication with the Beijing litterateurs and spreading Joseon's literary level to Chinese litterateurs. At the same time, he expanded the exchange network toward China, by introducing his neighboring literati to his friends in Beijing. Shin Wi's travel provided

a platform for not only the Noron Gyonghwasejok, but also Soron and Namin literati and middle-class poets to communicate with the Beijing litterateurs.

Key Words : Shin Wi(申緯), Weng Fanggang(翁方綱), Weng Shukun(翁樹崐), Wu Songliang(吳嵩梁), Jiang Shi(蔣詩), Chen Wenshu(陳文述), Qian Lin(錢林), Xiong Yangbi(熊昂碧)